

채우고 비워 주는 특별한 만남

(『꼭찬이 텅빈이』를 읽고)

정시윤

어떤 친구들은 자신감이 많다. 그래서 “자신감에 꼭 차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친구들은 자신감 덕분에 무슨 일이든지 용기 있게 해낸다. 머릿속도 멋진 아이디어도 꼭 차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신감이 꼭 찬 친구도 가끔은 휴식이 필요하다. 가끔은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필요할 때도 있다. 반대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다. 생각도 감정도 텅 비어 있는 것 같다. 생각과 감정이 텅 빈 친구도 자신감에 차 있을 때가 있다. 또 멋진 생각과 감정이 생겨날 때가 있다.

이 책은 꼭찬이와 텅빈이가 만나 서로 조금씩 자신의 조각을 나누어 주면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 이야기이다. 처음 이 책의 표지를 보았을 때 꼭찬이와 텅빈이가 어떤 아이인지 정말 궁금했다. 나는 표지를 보고 단번에 꼭찬이가 까만 아이, 텅빈이가 뒤표지에 있는 하얀 아이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야기를 읽어 보기 전에 꼭찬이와 텅빈이가 친구가 되는 이야기일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꼭찬이는 무엇이 꼭 차 있는지, 텅빈이는 무엇이 텅 비어 있는지 궁

금했다. 짝찬이와 텅빈이라는 이름 때문에 텅빈이가 짝찬이에게 도움을 받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런데 책을 읽어 보니 그렇지 않았다. 짝찬이는 자신감이 많고 외로워하지 않는 용감한 아이였다. 하지만 가끔 몸이 찌부둥했다. 텅빈이는 자신감이 많고 자유로운 아이였다. 그러나 가끔 두려웠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텅빈이가 텅 비어 있다고 해서 슬퍼 보이지 않았다. 텅빈이도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더 좋다고 했다. 두 친구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다. 짝찬이는 너무 짝 차 있어서 더 이상 아무 것도 채울 수 없었다. 텅빈이는 완전히 텅 비어 있어서 짝찬이가 들어오면 텅빈이는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둘은 서로에게 조각을 조금씩 나누어 주게 되었다. 짝찬이가 텅빈이의 조각을 머리카락에 넣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나는 뭔가 흥분한 느낌이 들었다. 짝찬이가 너무 짝 차 있어서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나도 가끔 내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동화구연 대회 무대에 올라갔을 때 머리가 새하얀 백지처럼 되었을 때도 텅빈이 조각이 들어간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반대로 짝찬이 조각이 텅빈이 머리에 들어갔을 때처럼 궁금증이나 호기심,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찰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 생각이 온통 머리에 짝 차 있는 느낌이 든다.

나는 짝찬이와 텅빈이가 섞여 있는 아이인 것 같다. 평상시에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자신감이 있는 편이다. 그런데 가끔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는 내 마음에 텅빈이 조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 방학에 여행을 가거나 혼자 있을 때 쓸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 그리운 마음이 들 때도 있다. 내가 아기일 때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었던 때가 그리운데, 그때를 생각하면 텅 빈 마음의 조각을 느낄 수 있다.

꽉찬이와 텅빈이는 서로를 만나 친구가 되어서 자신이 몰랐던 생각이나 느낌을 비우거나 채웠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를 비워 주는 사람이나 채워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다. 나를 비워 주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다. 왜냐하면 담임 선생님은 우리의 고민을 잘 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민이 마음에서 “쑥!” 빠진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면 채워진다. 외롭거나 쓸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 쓸쓸한 마음이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나가서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채워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책에서 나온 말처럼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일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꽉찬이와 텅빈이가 만나 서로를 조금씩 바꾸어 준 것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나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어 주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워 주는 사람일까? 채워 주는 사람일까? 나는 꽉찬이와 텅빈이의 조각이 모두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비워 주는 사람보다는 채워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고 즐겁게 해 주고 싶다.